

우리 정보화의 과제

유 완 재

(대우정보시스템 대표이사)

정보화가 불러온 변화는 무수하다. 기업환경의 변화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새 페이퍼 베이스(paper base) 환경이 페이퍼리스(paperless) 환경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CALS(Commerce At Light Speed)개념은 기업 내 차원에서 나아가, 여러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환경 실현을 촉진시키고 있다. 많이 편리하고 신속해졌다. 그러나 눈부신 성과 때문에 정보화 진행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정보화는 우선,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역사의 증언」 저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신뢰도가 낮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경제 효율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낮은 신뢰도는 정보화의 효율적인추진에도 분명 걸림돌이다. 확인하고 감시하는 절차가 많아져 시스템이 복잡해 지면 효율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시스템 구축에 있어 표준화된 방법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다. 일정한 원칙보다 개발자 개인의 경험에 크게 의존해서 구축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개발자 외에는 아무도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간 만들어진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여기에 시스템 플레이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몇 뛰어난 지도자, 경영자들의 순발력과 창의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다보니 시스템에 의한 경영보다는 사람에 의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화란 개인의 창의성과 시스템간의 협력 플레이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이고 사회고 시스템 플레이가 취약하다.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여러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보화를 해야 하는가?”는 이미 때늦은 말이다. 우리 이미 정보화 도상에 서 있다. 가야 할 길이라면 멋지게 달려가야 한다. 이제는 “정보화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디에서 부터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정보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언급했던 여러 문제점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고유하고 복잡한 환경부터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접근법일 것이다.